



3-1 수능은 '주관'을 객관화시킨 시험이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문(門)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었다.
그 흰출한 줄기마다
맺방석만한 꽃송어리가 돌고

해바라기 ㉠ 숲 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 치며 울었다.

파아란 바다가 보이는
산모퉁이길로
꽃상여가 하나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바다 위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오색(五色) 비단으로 돛폭을 달고
뱃머리에는 큰 북이 달려 있었다.

수염 흰 노인이 한 분
그 뱃전에 기대어
피리를 불었다.

꽃상여는 작은 배에 실렸다.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 조지훈, 「꿈 이야기」 -

(나)

누이여
또다시 은비를 더미를 일으켜세우며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뼉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 별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이슬 턱 풀잎새로 엉경귀 바늘을
살라주었다

봄은 살아 있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라
아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나리 나리 개나리
네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을 행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 기형도, 「나리 나리 개나리」 -





3-1 수능은 '주관'을 객관화시킨 시험이다.

28.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였다는 것은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살아 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름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④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퍼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⑤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29.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련에 맞서는 공간이고, ㉡은 희망을 상실한 공간이다.
- ② ㉠은 화자가 존재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바라보는 공간이다.
- ③ ㉠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은 화자의 기대가 반영된 공간이고, ㉡은 화자의 심리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 ⑤ ㉠은 미래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는 공간이고, ㉡은 과거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죽음은 실제적 아픔의 원인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가)는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것이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하여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나오면서도 '문'을 '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 산모퉁이길'을 거쳐 바다로 가므로 '산모퉁이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누이에 대한 '투명한 /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에게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은 화자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화자가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3-1 수능은 '주관'을 객관화시킨 시험이다.

28번

📍 문제풀이분석

우선 보기가 (가)와 (나) 두 지문을 모두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단독문제를 봐야하는데 (나)에 대한 단독문제가 28번에 있다. 그러므로 (나)를 먼저 읽는게 효율적이다.

보기(나)>>30번 4,5번>28번>29번 3번
픽스>보기(가)>(가)>보기123번>29번 3번>27번

📍 문제분석

내용에 대한 단독 문제이며 적절치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다. 그렇다면 주제성에 따라 선지들을 걸러내고 정답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지 하나만을 투자하는게 가장 효율적이다.

🗨 BEST

123번은 보기의 주제성에 들어 맞는 선지다. 그러므로 선지를 본다면 적절치 않을 확률이 더 높은 4번과 5번을 확인하려 가는게 효율적일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자면 4번과 5번 중 답을 바로 5번으로 선지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베스트일거다. 왜냐하면 보기에선 상실감과 슬픔이란 주제성은 슬픔이 극복되지 않은 현재진행형을 나타냄으로 보기의 주제성과 반대이기 때문이다. 아직 기초 단계니 이 풀이는 파이널 때쯤 쓰는 풀이라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정당화

①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었다는 것은 누이가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1번 선지 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과 선지의 주관이 일치한다. 그러므로 이 시의 표현된 모든 누이 관련 표현들은 누이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

② '살아 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고 한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정당화

지문 (나)

살아 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 2번 선지 판단과정

두 가지 판단을 보여주겠다. 베스트는 보기의 주제성과 선지의 주관이 일치하니 이 시의 모든 표현들은 누이를 잃은 슬픔이어야 한다. 세월을 모른다라는 표현도 주제성이란 맥락을 떼어 놓고 보면 시간이 빨리 간다라던지 등의 여러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지만 누이를 잃은 슬픔이란 주제성 아래에선 반드시 누이를 잃은 슬픔이어야만 한다.

아직 1번선지와 2번선지에 대해 능숙치 않다면 차분히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세월을 모른다라는 워딩만으론 죽음에 아파한다라는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능숙해지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사실의 주변부로 가자. 주변에 내가 가져간/ 버리고 간 시간이란 표현이 있다 그러므로 죽음에 아파한다라는 부정적 워딩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정당화

③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름을 드러 낸다고 볼 수 있군.

📍 3번 선지 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에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으므로 사실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 부분이 부르지 않아도라는 표현은 선지의 주관인 의지와 상관없이를 정당화시킨다.



3-1 수능은 '주관'을 객관화시킨 시험이다.

28번

정당화

㉔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퍼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4번 선지 판단과정

3번과 마찬가지로 보기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으니 확인 절차를 거쳐야한다. 사실부분을 확인하니 봄이 되자 꽃이 핀다라는 사실 자체가 선지의 주관을 정당화한다.

㉕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는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지문 (나)

반대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을 행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 5번 선지 판단과정

BEST는 앞에서 서술하였듯 보기의 주제성으로 바로 1번선지처럼 판단하는 것이나 그게 쉽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기본 원리에 의한 풀이를 적겠다. 바로 판단이 안되면 2번선지처럼 주변으로 가면 된다. 주변에 '유령처럼'이라는 워딩이 있다. 선지의 주관인 슬픔을 극복하다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와 정반대되는 단어다. 그러므로 적절치 않은 선지 1번 유형인 반대 단어가 주변부에 존재한다.

정답⑤





3-1 수능은 '주관'을 객관화시킨 시험이다.

29번

문제분석

두 지문에 걸친 내용문제며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다. 한 지문에서 주제성과 선지 발문에 딱 들어맞는 선지는 단 1개다. 우선 그걸 골라놓고 다음지문에서 골라놓은 선지를 먼저 보고 답을 찍고 가야 한다.

지문 (가)

해바라기 ㉠ 숲 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낮닭이 깃을 치며 울었다.

정당화

㉢ ㉠은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다.

지문 (나)

정당화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 별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BEST는 앞에서 서술하였듯 보기의 주제성으로 바로 1번선지처럼 판단하는 것이나 그게 쉽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 기본 원리에 의한 풀이를 적겠다. 바로 판단이 안되면 2번선지처럼 주변으로 가면 된다. 주변에 찬물로 눈을 행구며라는 워딩이 있다. 맥락을 떼어놓고 봤을 때 여러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누이를 잃은 슬픔이란 주제성 아래에선 슬픔 즉 눈물을 닦는다라는 의미로 봐야만 한다. 그러므로 슬픔을 극복하다라는 주관과 반대되는 표현이 있다.

정답③

3-1 수능은 '주관'을 객관화시킨 시험이다.

30번

문제분석

보기의 주제성에 따라 1번선지는 1번선지대로 2번선지는 2번선지대로 깔끔한 판단을 하는게 중요하다.

1번 선지 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이 선지의 주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정당화

①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하여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나오면서도 '문'을 '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보기의 주제성에 따라 지문에 나온 모든 문은 현실과 꿈의 경계를 이야기하며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만 한다. 그러니 1번선지처럼 가볍게 판단하자.

2번 선지 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이 선지의 주관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② (가)에서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 산모퉁이길'을 거쳐 바다로 가므로 '산모퉁이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정당화

보기의 주제성에 의해 문 안의 세계는 꿈 속 세계이며 이에 대한 모든 표현들은 삶과 죽음의 연결성을 표현해야만 한다. 선지의 사실 부분은 문 안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니 가볍게 1번선지처럼 처리할 수 있다.

3번 선지 판단과정

2번선지처럼 보기의 주제성과 일치하고 문 안의 세계는 삶과 죽음의 연결성을 이야기 해야만 한다.

반대

③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 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선지의 주관인 현실과 꿈 속이 연결된 것은 문과 문 밖 세계를 연결할 때만 성립하는 이야기다. 즉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라는 표현에서만 성립되는 선지이므로 틀린 선지다.

4번 선지 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과 선지의 주관이 일치하므로 1번선지처럼 판단할 수 있다.

④ (나)에서 누이에 대한 '투명한 /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에게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은 화자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군.

정당화

보기의 주제성에 따라 시에서 나오는 모든 봄에 관련된 표현은 누이를 잃은 아픔과 슬픔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볍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5번 선지 판단과정

보기의 주제성과 선지의 주관이 일치하므로 1번선지처럼 판단할 수 있다

정당화

⑤ (나)에서 화자가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을 거느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보기의 주제성에 따라 시에서 모든 죽음 관련된 표현은 누이를 잃은 슬픔과 연관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다.

정답③